

2011 왕곡마을 전통축제 성황리 마쳐

떡메치기·왕곡주 시음 등 인기…… 개최시기 종전대로 가을철에 해야 지적 많아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죽왕면 오봉리 일대에서 개최된 2011 왕곡마을 전통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10월경에 개최하던 것과 달리 처음으로 한여름에 행사를 개최했다.

또 왕곡마을에서 행사가 진행될 것과 달리 마을입구에 별도의 '체험장'을 조성해 이곳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왕곡마을 체험행사를 위해 체험장에서 경운기를 이용해 왕곡마을까지 이동시켜 절구체험, 디딜방아체험, 비석치기, 투호놀이 등 왕곡마을 전통가옥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왕곡마을 'ㄱ'자 집의 비밀, 돌담따라 떠나는 왕곡마을 이야기, 왕곡마을 둘레길 탐방 등 왕곡마을 주변 농로 체험 프로그램 행사도 열렸다.

체험장에서는 함씨와 죄씨 깃대 싸움놀이 및 짚풀공예, 지게지고 외나무다리 건너기를 비롯해 왕곡 농산물 재래시장, 짚신 말리던지기, 왕곡사진 전시회, 떡메치기 체험 등 전통 문화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봉수대 오토캠핑장에서 행사장까지 걸어왔다는 관광객 김현철씨(경기도)는 "떡메치기 체험이 가장 재미 있었다"며 "이번 체험을 통해 떡의 전통성을 다시 알게



2011 왕곡마을 전통축제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떡메치기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됐다"고 했다.

또 멧돌체험, 두부만들기체험, 왕곡주 시음, 전통전 만들기, 용두레, 맞두레 체험, 전통혼례재현, 소원성취 매달기, 민속씨름 등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2011년 왕곡마을 전통민속축제 체험은 현대문화와의 변화 속에서 역사적 전통마을을 소개하고 체험함으로써 옛 것을 지키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행사 개최시기에 문제가 있으며, 체험장과 마을간 연계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사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복장의 통일성에 대해 지적도 있

었다. 또 행사장인 체험장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가 열려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축제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이런 전통적 문화체험장을 만들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고성을 찾은 보람이 있었다"며 "그러나 날씨가 너무 더워 좀 선선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왕곡마을 보존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잘 치러진 것으로 평가하지만, 너무 더워서 개최시기를 그동안 해오던대로 가을철에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군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죽왕면장학회 장학금 전달

대학생 10명에 각 100만원씩 지급



죽왕면장학회는 지난 18일 죽왕면주민자치센터에서 장학생 10명에게 각각 1백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죽왕면장학회(회장 문원길)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죽왕면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에서 대학생 장학생 10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 10명

당당 1백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전달했다.

2006년도 설립된 죽왕면장학회는 향토인재육성을 위해 그동안 고교생 10명과 대학생 55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총 6천만원을 전달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합창단 태백전국합창경연대회 리허설

제29회 태백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고성합창단(단장 김옥란)은 지난 18일 오후 7시 금강산콘도 연회장서 유관기관단체장과, 합창단원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리허설을 겸한 한여름 밤의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작은음악회는 고성군 대표로 참가하는 고성합창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량 향상과 우수한 성적을 위해 지역주민이 응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프닝 음악 아름다운 베르네 합창을 시작으로 소경희 단원의 독창과 손세미씨



지난 18일 금강산콘도에서 제29회 태백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고성합창단 최종 리허설 및 작은음악회가 열렸다.

(관동대 음악학과 3년)의 플룻 독주를 비롯해 합창단 반주자 김혜미씨의 해금 독주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합창으로 성황리 진행됐다.

한편 강원예총이 주최하고 태백예총과 한국음악협회 태백시지

부가 주관한 제29회 태백전국합창경연대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태백 문화예술회관 및 O2리조트에서 전국 21개팀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박승근 기자

“문학을 사랑했던 당신...”

新노년문학상 공모 ... 만60세 이상 대상

“문학을 사랑했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한때 문학소년, 문학소녀였던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상이 공모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신노년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2011년 JTI 新노년문학상을 공모하고 있다.

응모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남녀, 응모기간은 8월1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응모부문은 시와 수필이며 원고에 제한은 없다. 시는 3편, 수필은 2편까지 응모할 수 있다.

시상은 각 부문별로 이뤄지며 대상 1명 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 50만원, 가작 3명 30만원이다. 당선작 발표는 10월 14일 개별 통지하며, 시상식은 11월 4일 열린다. 제출방법은 A4용지 또는 원고지에 수기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적어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 등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홈페이지(www.kaswcs.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 고성군노인복지회관 682-8000>

최광호 기자